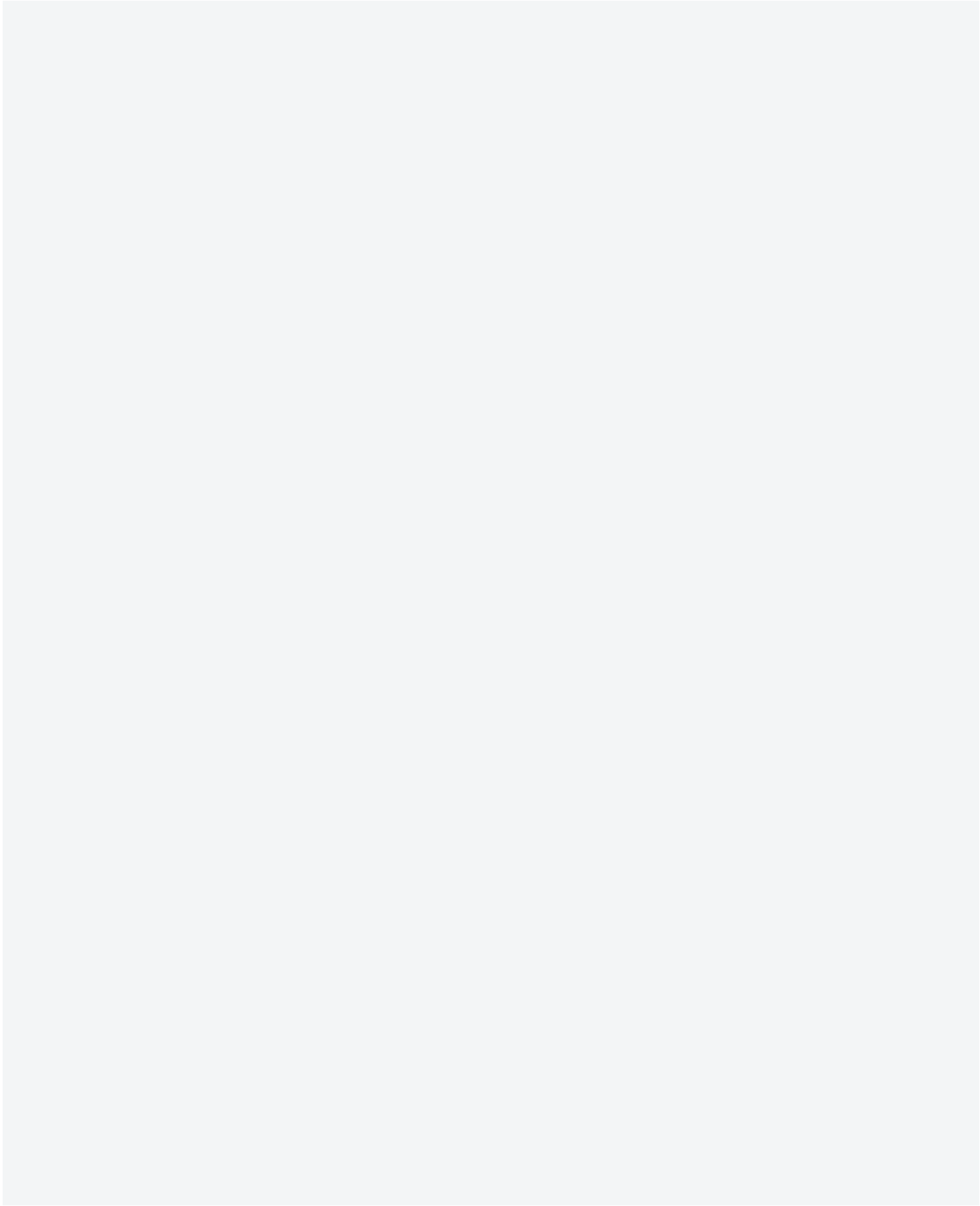


Coaching

● 2021 FEBRUARY Vol.37

People Interview

**8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폴정코치!**



“영동대교”

성게처럼 뻗친 열이
유난히 나를 보낼 때
영동대교를 건넌다

내 비밀을 고요히 읽고 가는 강물은
묵은 껍질과 얼음의 언어를
실어 보래라 한다

수평선 넘어 쉬어가는 해가 내일을 단장하고
나는 점점 탈색되어 희미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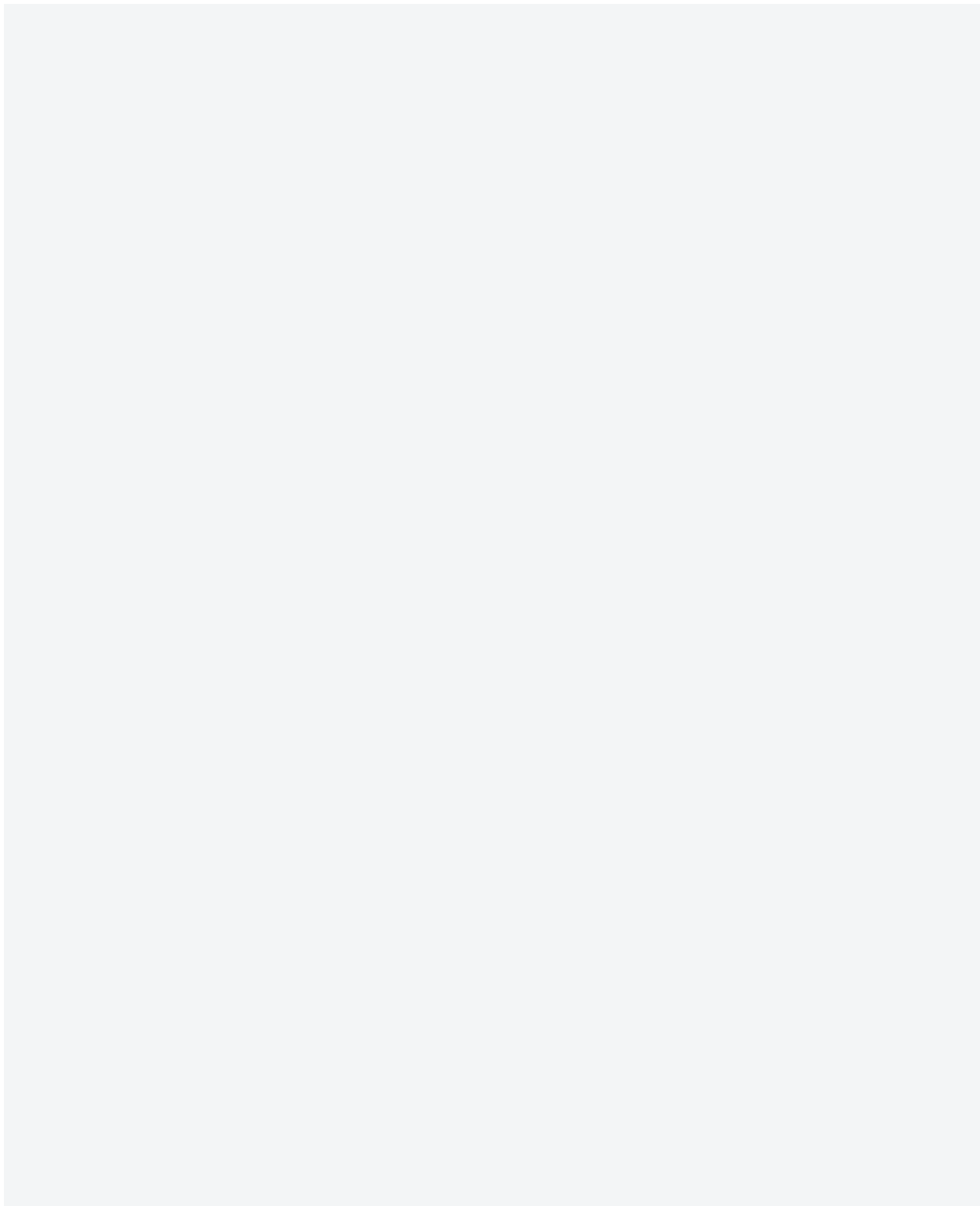
어둠이 내린 배경
스스로 위로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어느새
상처에 데인 자리는
주홍빛으로 간질거려온다.

전선영

現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KPC)
現 주와독서심리코칭 소장
現 한국독서문화협회 대표
現 한국문인 등단문인
한국문인 신인작가상
울목시민문학상
저서 <주와> 시집





Coaching

CONTENTS

2021 FEBRUARY VOL.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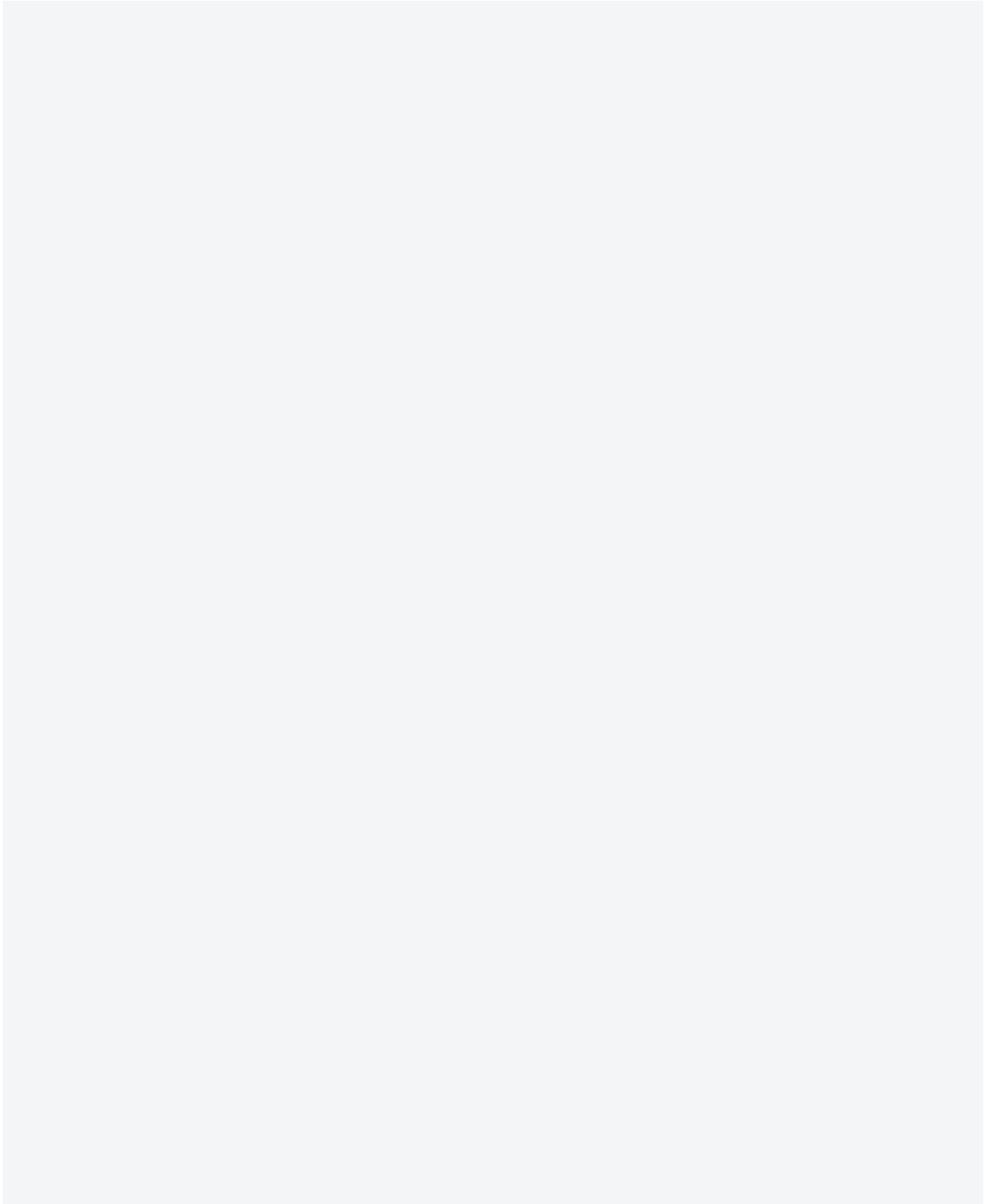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PEOPLE INTERVIEW

- 02 인사말_ 세계를 흔들어놓은 펜데믹 현상에서 변화하는 코칭 8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폴정코치
- 04 위원회소개_ 각 위원회의 정의 및 2020년 어떻게 보냈는지, 2021년 어떻게 보낼건지?
- 08 인터뷰_ 개인의 성장 그리고 코치의 성장 아하코칭센터
- 10 인터뷰_ 코칭훈련을 통한 코칭산업과 이론발전, 한국코칭 슈퍼비전 아카데미

ZOOM IN ISSUE

- 12 coaching column_ 코치라는 직업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3C
- 14 coaching issue inside_ 새로운 코칭 도구 아로마!
- 16 coaching issue inside_ 코칭에 기반한 멘토링

(사)한국코치협회 협회지 <Coaching> 2021년 February (통권 제37호) 발행처 (사)한국코치협회(02-563-8798, www.kcoach.or.kr)
 발행일 2021년 2월 26일 발행인 강용수 편집인 김철 편집장 김삿별 디자인 옛지피앤디



people interview

세계를 흔들어놓은 펜데믹 현상에서 변화하는 코칭

8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폴정코치

글 김철 (홍보위원회 위원장 / KPC인증코치)

편집 김새별 (홍보위원회 편집국장 / KPC 인증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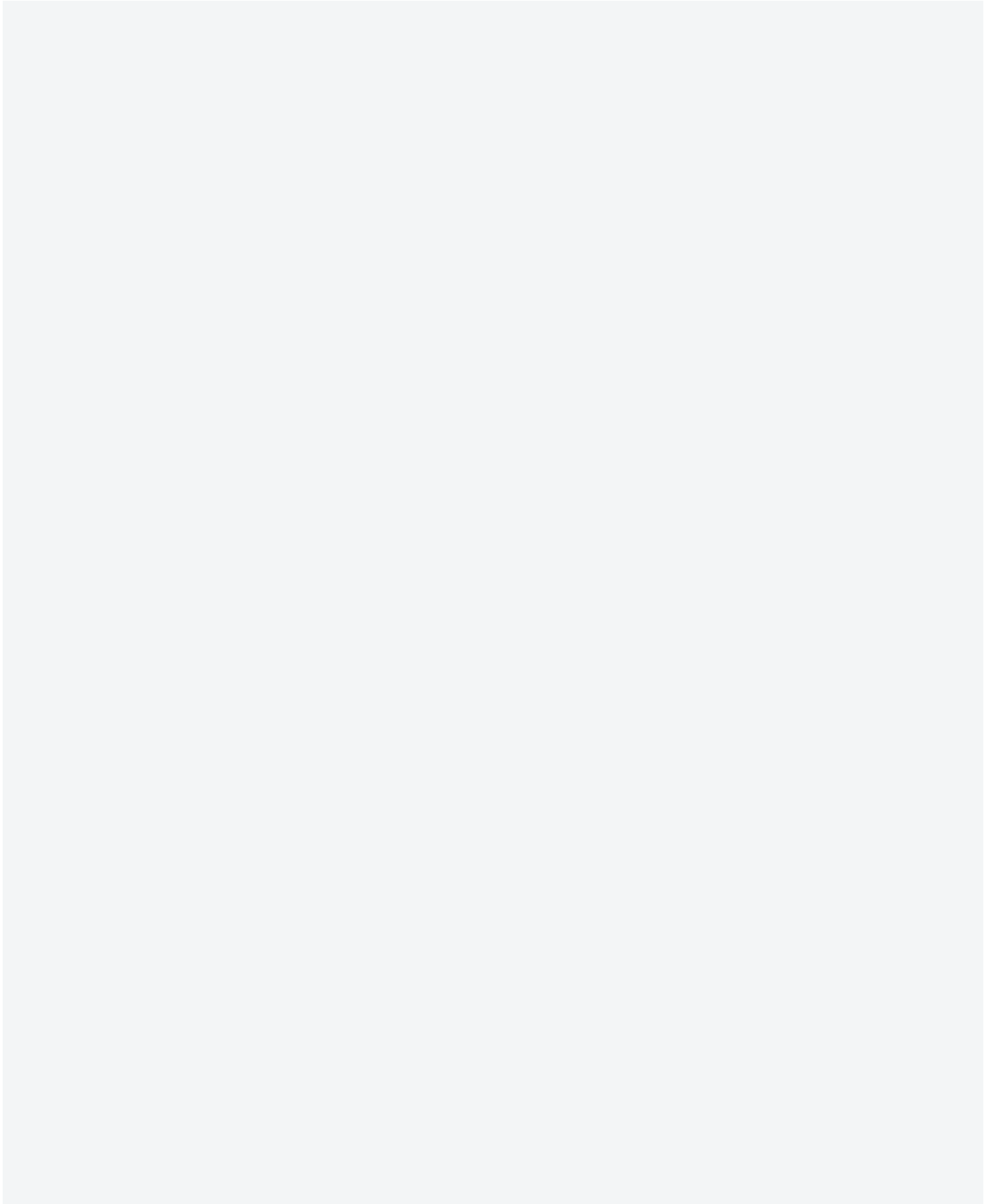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2021년 신년인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덕분에 모든 코칭활동이 비대면으로 바뀐덕분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제가 8년전 한국을 떠날 때 코치협회 인증코치가 4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8,000여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ICF 에도 2001년 4,691명이었던 프로코치 멤버가 2021년엔 149개국 41,741명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앞으로 더욱 코칭운동이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외국에서 활동하지만 늘 한국 코치협회를 자랑하는 이유는 세계 어느 나라도 질적으로 높은 국내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이렇게 코치들이 성장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에는 전세계 프로코치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1개월 만에 약 6,147명의 프로코치들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얼마큼 코칭이 사회적 필요를 채워야 하고 사회적 문제에 코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유가치 창출 (CSV) 기회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전문코치활동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국에는 마이크로 소프트사 첫 고객을 시작으로 13년 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홍콩 등 11개 도시



에서 가장 많은 프로코치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코칭 과정은 통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코치님들도 K코칭 운동을 가지고 아시아시장에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연히 만난 중국분을 무료로 열심히 코칭 해준결과 그분의 초청으로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고객이 계신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더 많은 코칭 기회에 도전하시기를 격려하고 응원 합니다.

앞으로 코치들이 어떤 것에 집중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중국으로 진출 전 한국에서의 코치로써 생활은 코칭을 알리고 기업들 코칭과 프로코치들을 양성하는데 몰입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진출후 고객을 만나면 때론 고객의 가족과 팀원들까지 열정을 다해서 고객 만족을 시키는 일에 집중 했습니다. 즉 만족한 고객이 VIP 평생고객이 되어서 관계와 입소문으로만 100% 새고객을 소개시켜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에서 배운 것은 진정성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배웠습니다. 지금도 10년 동안 봉사해주시는 70여분의 멘토코치들의 헌신으로 중국, 홍콩, 대만에서 지속적인 코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코칭 시장은 전세계 대표적인 코칭 회사들이 한번 씩 들어와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중국 코칭 시장을 공략하지만 마치 패션쇼처럼 몇 년 후에는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칭은 기술 보다는 고객의 존재의 탁월성을 열정적으로 믿고, 개발되도록 존중해 주고, 그들관계에 변화를 줄수 있는 전폭적인 코칭 관계 문화를 구축 해 주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의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님들이 내가 경험한 코칭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경험 하시도록 그들의 가족과 팀들까지 코칭 문화가 정착 되도록 격려하고 후원 하고 상호책임을 열정적으로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치들이 집중해야 하는것은 4차산업과 코로나 이후 언택트 산업과 코치들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화두는 4차 혁명과 AI 언택트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소통단절 사회, 인력과 조직 구조 혁신적 변화로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만 살아남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

도 오프라인이 산업은 70%가 사라진다고도 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하드스킬의 발전으로 소프트 스킬의 갭차이들 더 만들어 냅니다. 제가 확신 하는 것은 코칭이 이 갭차이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4차 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새롭고 창조적이며 통합적인 문화와 수평적 리더십은 코칭을 통해서 꽃피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코치협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한국 코치협회의 감동스러운 발전에 경외함을 보냅니다. 그동안 협회 발전에 기여해 주신 모든 코치님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들이며 코치협회에 헌신하시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저 또한 중국과 홍콩 4개 지역에 ICF 챗터와 코치 협회를 창립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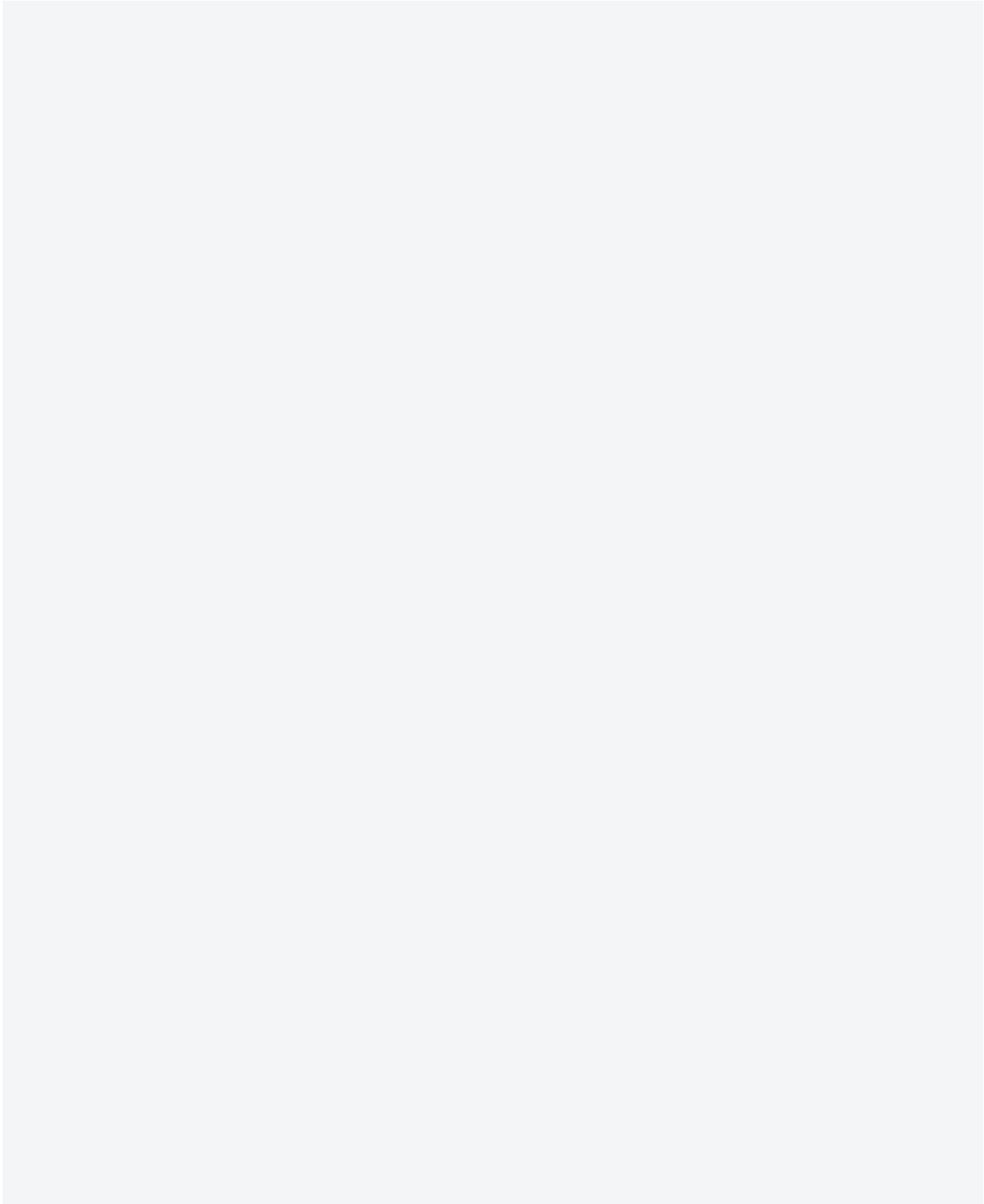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하지만 몇 달 전 중국 정부의 법규때문에 ICF로 부터 중국 모든 챗터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많은 코치님들이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국가 인증을 위해서 더욱 노력 하고 있고 여러 대학 MBA 학생들을수많은 코치님들이 멘토 코치역할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코칭협회인 EMCC는 너무나 많고 다양한 백그라운드들을 가진 코치들의 탄생으로 더욱 신뢰 할수 있는 코치 인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만약에 미래에 국가 공인 코치자격 기준이 만들어 진다면 한국 코칭 시장 발전뿐만아니라 아시아 코칭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자격과 동시에 조심히 K코칭의 영향력의 꿈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아시아 고객들을 비대면으로 더욱 집중해야 하므로 한국 활동은 온라인에서 저의 노하우들을 공유 하는 것 외에 아직 계획을 잡을 수 없지만, 한국 코칭 시장 발전과 코치협회 발전을 위해서 온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더 많고 좋은 코칭 리더십 확산을 위해, 더 많고 좋은 코치들이 양성되어 각 분야의 고객들에 코칭 문화를 함께 확산해 나가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



people interview

2021 한국코치협회 위원회 모집!

2021년 한국코치협회의 각 위원회를 이끌어갈 많은 위원들을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또 2021년에는 어떤 기대되는 활동이 기다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총 13개의 위원회 중 인터뷰에 참여한 위원회만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코칭위원회

글 이정민 (공익코칭위원회 위원장)



1. 우리위원회 정의 및 역할

- 공익코칭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등을 대상으로 코칭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공공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국민행복지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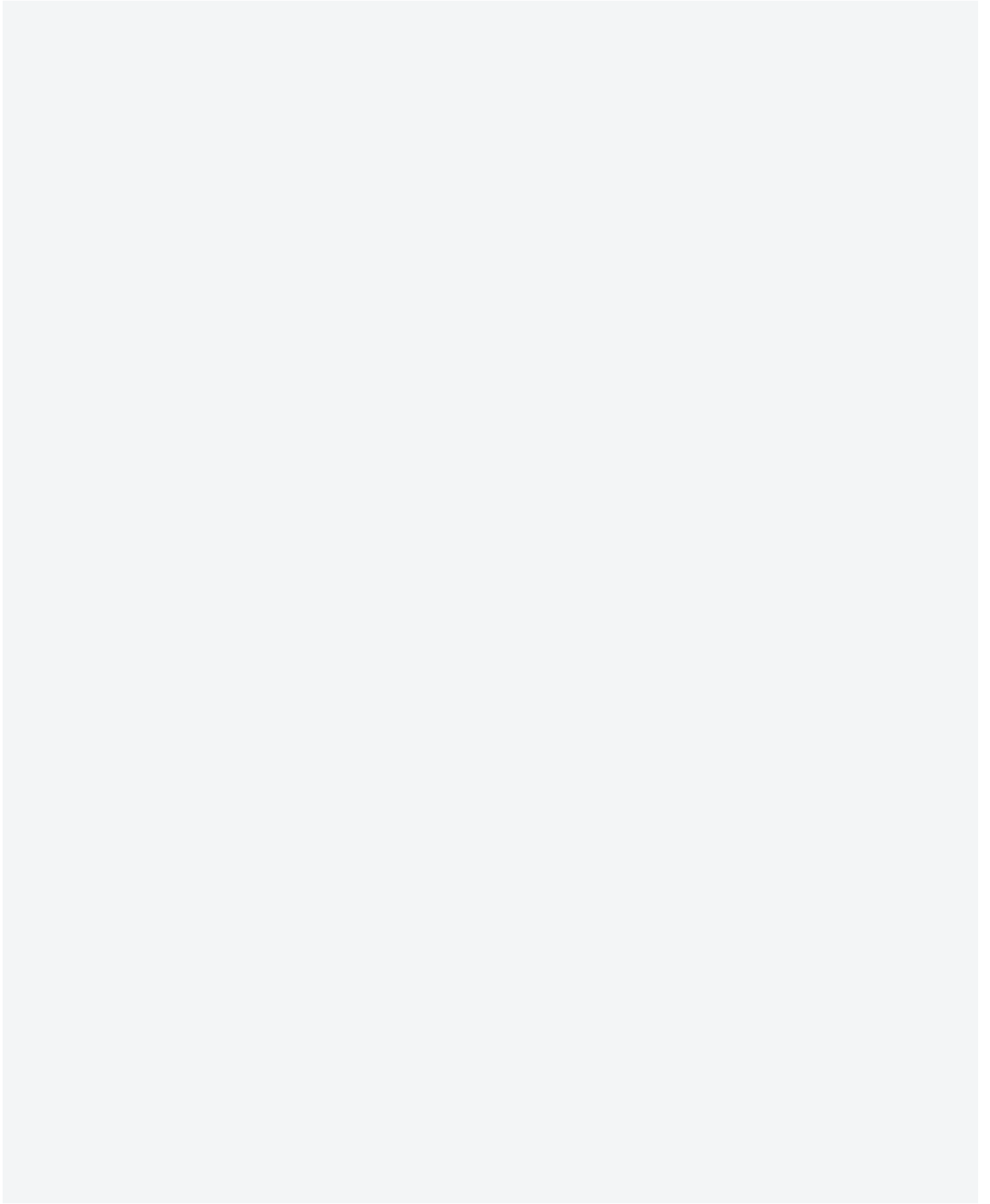
2. 2020년 우리 위원회의 활동정리

- 공익코칭 대상기관 선정 및 참여코치 선발부터 시작하여, 그룹홈 학생들을 위한 진로코칭, 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파코칭, 한국컴패션과 함께한 원플코칭, 보건의료인의 심리적 탈진을 돕고자 한 덕분에 코칭 등, 총 5개 프로젝트 등 78명의 코치님들과 378회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3. 2021년 활동 및 업무계획 디자인

- 2021년에는 공익코칭이 절실히 필요하고, 해당기관의 참여의지가 높은 기관으로 우선순위를 추진예정입니다. 또한 공익코칭위원회 자체적인 프로젝트 기획으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공익코칭 대상 확대 및 협회 캠페인 차원의 중장기 지속활동 추진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익코칭 프로젝트에 대한 회원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독교코칭센터

기독교코칭센터 / 글 박중호 (기독교코칭센터장)

1. 우리위원회 정의 및 역할

- CORE VALUE : 섬김, 믿음, 소망, 사랑, 빛과 소금
- MISSION : 기독교 코칭센터는 그리스천 코칭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다.
- VISION :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의 그리스천 코칭 능력 향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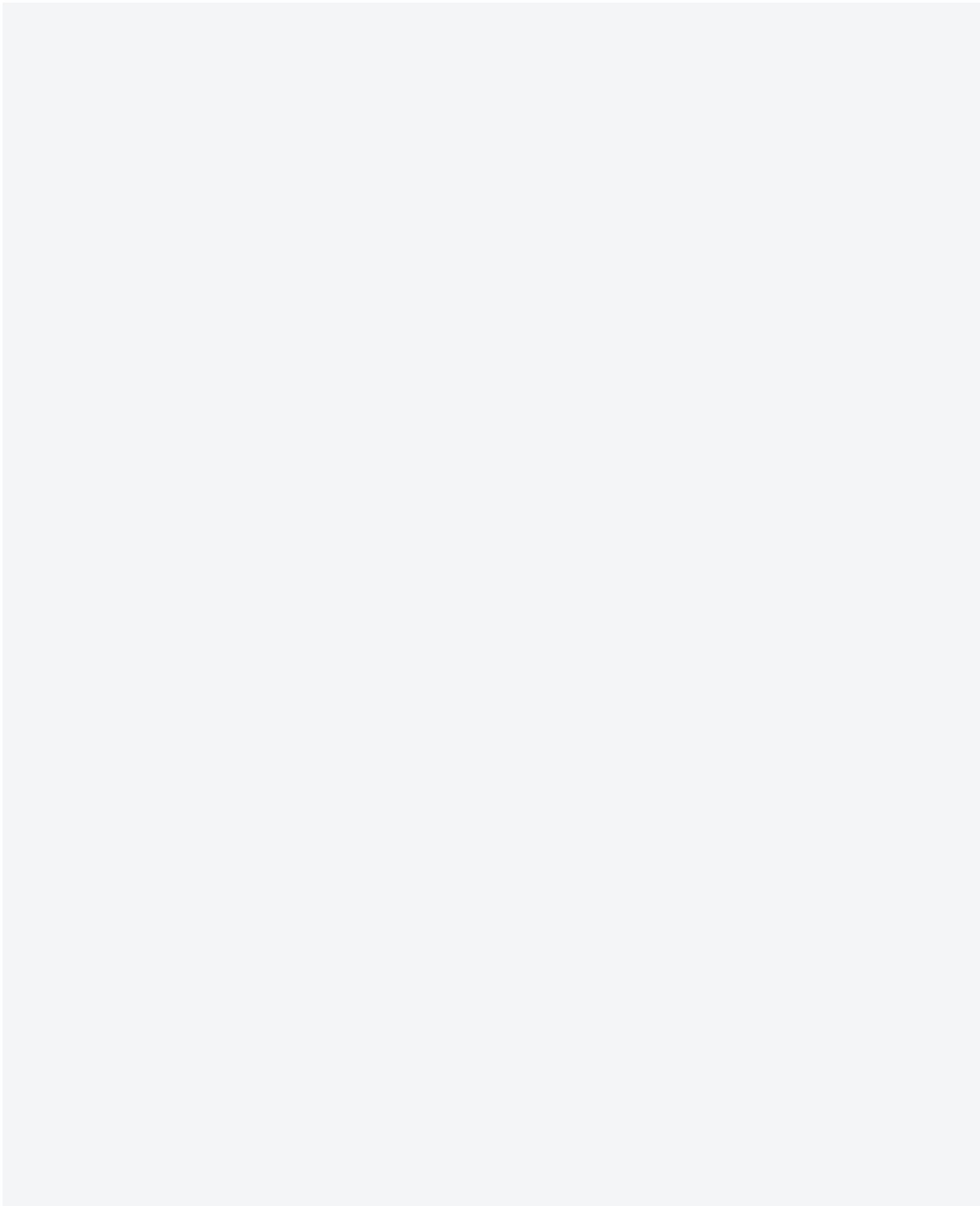
2. 2020년 우리위원회 활동정리

- 프로그램 인증 : CCL, CCL+, 임마누엘, 트리니티, TCL/TSL
- 코치자격인증 : KACC, KPCC 각 2회 인증 (총 117명)
- 영성코칭 역량강화 : 제1회 기독교 코칭컨퍼런스 개최 (강사 5명, 참가자 140명)
- 대외협력강화 : MOU체결 (고려대학교교회, 호수돈여고, 예담힐링아카데미)

- 월례회 : 사업계획과 집행을 위한 위원회 (총8회/송년의 밤)
- 비전선언을 위한 모임 : 국장단 워크샵

3. 2021년 활동 및 업무계획 디자인

- 코치자격인증 : KACC, KPCC 각 2회 (300명 목표)
- 프로그램인증 : 수시심사 (매월 초 접수)
- 코치인증 심사위원 교육
- CCL프로그램 운영
- 제 2회 기독교 코칭컨퍼런스 개최 (강사5명, 참가자300명)
- 코칭 선교차원의 공익 코칭 시행
- 홈페이지 구축 : 위원회 홍보 및 인증업무 Digital화
- 국별 월례회 & 역량강화 특강 : 10회
- 국장단 워크샵 : Road map점검
- 대외협력 : MOU체결 기관 지속적인 교류
- 기독교코칭학회발족(Global Spiritual K-coaching Model개발)





비즈니스코칭위원회

글 박홍식 (비즈니스코칭위원회 위원장)

1. 우리위원회 정의 및 역할

모든 조직은 성과창출을 통한 발전과 지속성장을 추구합니다. 우리위원회는, 협회 회원들이 이러한 조직의 비즈니스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코칭을 진행하고 수요도 발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2. 2020년 우리위원회 활동정리

대나무는 종자를 심고 5년째에 죽순이 돋고 그후 엄청난 속도로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위원회가 5년간 준비해 온 BC실무프로그램의 제1기 과정이 2020년 하반기에 진행되었습니다.

19명 수료생의 활발한 '실행그룹' 활동이 곧 조직화될 '비즈니스코치 풀'에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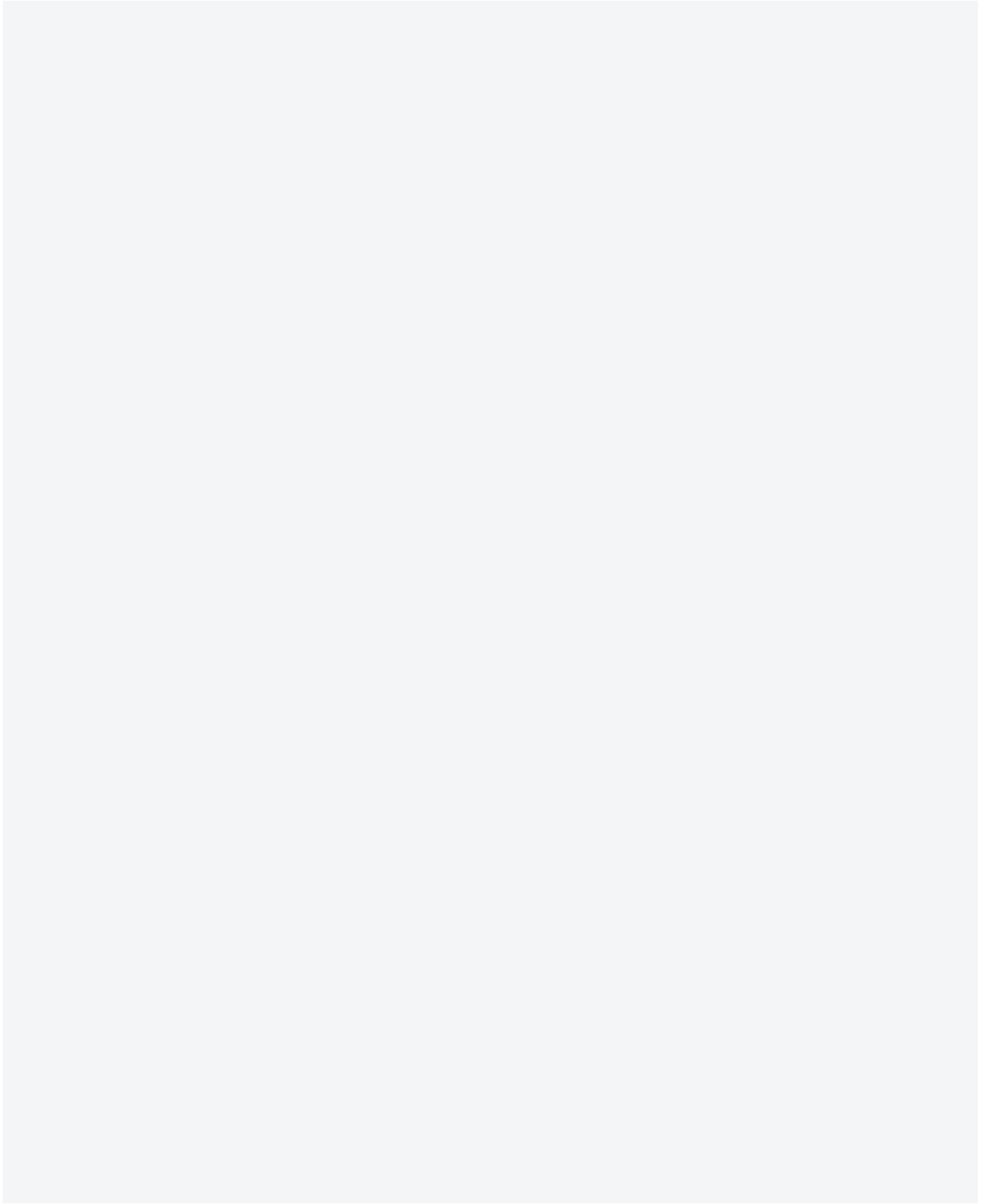
3. 2021년 활동 및 업무계획 디자인

1월의 제2기 과정은 수도권외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방침에 부응해서 100% 실시간 줌 활용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상황에서의 최적화된 실습방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한 결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제1기보다 더 높은 만족도로 평가받으며 2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과정은 올해에 제5기까지 계속 진행되며 누계 1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탄탄한 '비즈니스코치 풀'의 핵심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에 힘이 되기 위해서 비즈니스코치로서 활동하시기를 원하는 코치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홍보위원회

글 김삿별 (홍보위원회 편집국장 / KPC 인증코치)

1. 우리위원회 정의 및 역할

한국코치협회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합니다.

코칭문화확산을 위해 무엇보다 다양한 코칭과 코치의 모습을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2020년 우리위원회 활동정리

홍보위원회 활동 최초로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위원회 블로그기자단을 선발하였고 매월 다양한 기사를 블로그에 기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진으로 발행되던 협회지를 약 2년만에 인쇄형태로 재발행하여 다양한 기관과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들께 배포하여 코칭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3. 2021년 활동 및 업무계획 디자인

오프라인으로 계획한 다양한 행사들을 코로나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한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홍보위원회에서는 비대면형태로도 가장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코칭을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한 꾸준한 콘텐츠개발과 더불어 본인의 역량을 이용하여 코칭문화 확산에 앞장설 많은 코치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people interview

개인의 성장 그리고 코치의 성장

아하코칭센터

진정한 성공과 균형잡힌 인생을 위해 필요한 훌륭한 코치
아하코칭센터가 추구하는 코치의 모습과 코칭의 의미를 만나보자

글 김운양 (아하코칭센터 대표)

편집 김셋별 (홍보위원회 편집국장 / KPC인증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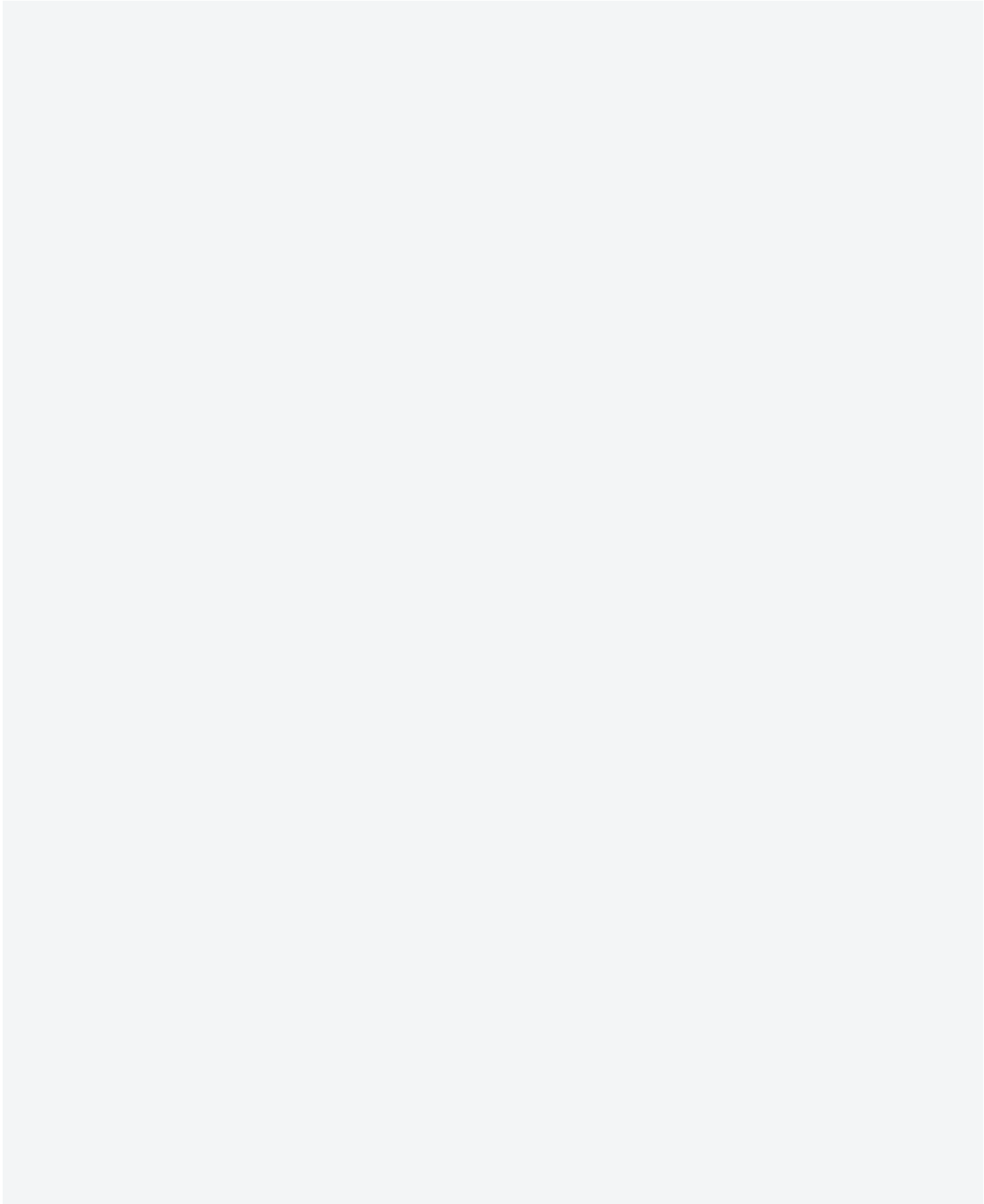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1. 아하코칭센터에 대한 소개

아하코칭센터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자아의 실현, 가정의 행복 및 사회적 성취가 균형 잡힌 삶이 되도록 통합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인생설계, 시간관리, 습관관리, 경력관리 등 라이프 코칭을 지원합니다. 또한 한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치료 이론에 기초한 부부관계, 부모훈련, 재정관리, 가족문화, 노후설계 등을 지원하는 패밀리 코칭을 비롯하

여 사회적인 측면에서 목표관리, 성과관리, 구성원 육성, 협업관리, 동기부여 등 비즈니스와 관련된 코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아하코칭센터가 그리는 2021년은 어떤 모습인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하코칭센터의 2021년도 목표는 상당히 도전적인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국제사업으로는 올해 [영국



아하코칭센터가 발족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캐나다 아하코칭센터]를 발족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째, 개발사업으로는 그동안 해외에서 수십여 번의 세미나를 실시했던 [ACC-아하 크리스천 코칭]을 한국코치협회인증 프로그램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하 패밀리 코칭 - AFC] 프로그램의 심화과정을 추가로 개발하여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셋째, 육성사업으로는 올해 인증코치를 최소 50명이상 배출할 목표로 적극적으로 코칭 클래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 나에게 코칭이란?

나에게 코칭이란 감초이고 또한 요술램프이기도 합니다. 티칭이나 컨설팅이 외부에서 밀어내는(Push) 것이라면 코칭은 감초와 같이 끌어당기는(Pull) 성질이 있기에 서로 다른 한약재를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요술램프는 자신이 원할 때마다 램프 안의 지니를 불러내는 것처럼, 코칭은 자기 안에 있는 거인을 불러내고 필요하다면 거인으로 상징되는 자신의잠재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코칭문화의 확산을 위해 코치들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까?

제 관점에서는 코칭문화의 확산을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코치라면 코칭교육과 셀프코칭을 통해 먼저 자기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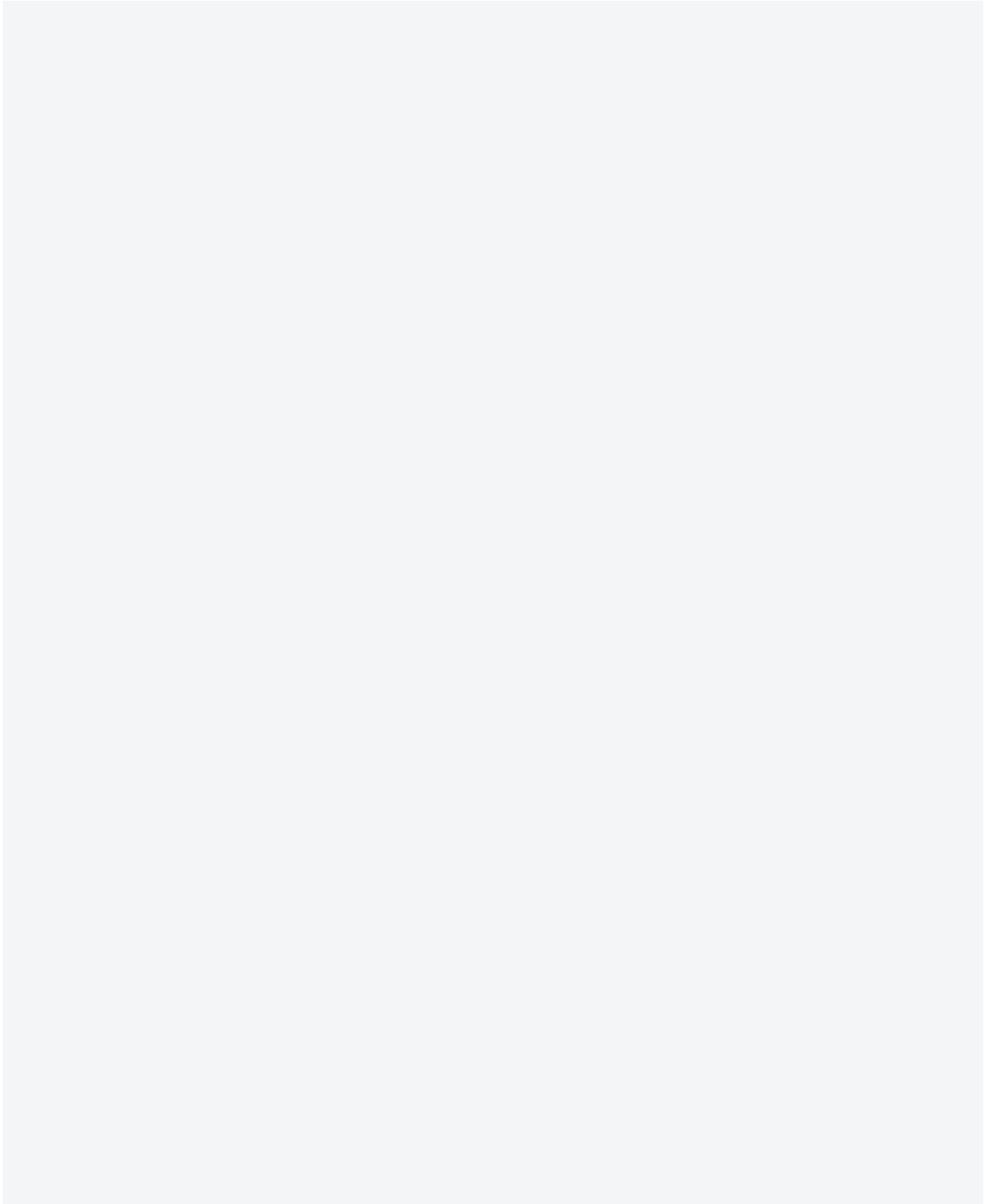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둘째, 코치 자신의 변화된 삶이 반드시 가정 내에서 입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코칭의 효과가 가족들에게 입증되어야 비로소 가정 내에서 코칭문화가 정착된다고 봅니다. 셋째, 따라서 코칭문화를 외부 세계에 확산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변화와 언어와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5. 한국코치협회 회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말

의사는 병에 관심이 있지만 간호사는 병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컨설팅은 문제에 초점을 두지만 코칭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코치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야 하므로 인간 이해를 위한 공부가 코칭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치들이 코칭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삶속에서 진정한 에고리스(egoless)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자기겸손이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모든 코치들이 “코치는 역시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people interview

코칭훈련을 통한 코칭산업과 이론발전, 한국코칭 슈퍼비전 아카데미

코칭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닌, 코칭을 멋지게 해내는 코치를 위한 기관.
코칭영역에 건강한 소비를 진정으로 기원하는 한국코칭슈퍼비전아카데미를 만나보자

인터뷰, 글 정연택 (홍보위원회 마케팅국장 / KPC 인증코치)

편집 김삿별 (홍보위원회 편집국장 / KPC 인증코치)



한국코칭슈퍼비전아카데미에 대한 간단한 소개 / 인사말 부탁 드립니다.

이제는 실천코칭, 실전 1:1 코칭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코칭 산업과 코칭 이론이 발전하는데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코칭슈퍼비전아카데미는 바로 이를 집중 훈련하는 곳입니다. 소수 인원 중심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하는 코치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자기 스타일의 코칭을 직접 조각하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한국코칭 슈퍼비전 아카데미가 그리는 2021년의 모습은 어떤가요?

매년 해오던 인증 프로그램 진행하고, 코칭 전문 서적, 연구 서적 출판을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올 해도 10여권의 출판이 줄을 서 있지요. 언택시대라고 하니까 새롭게 온라인 코칭스쿨(ecoachingschool.net)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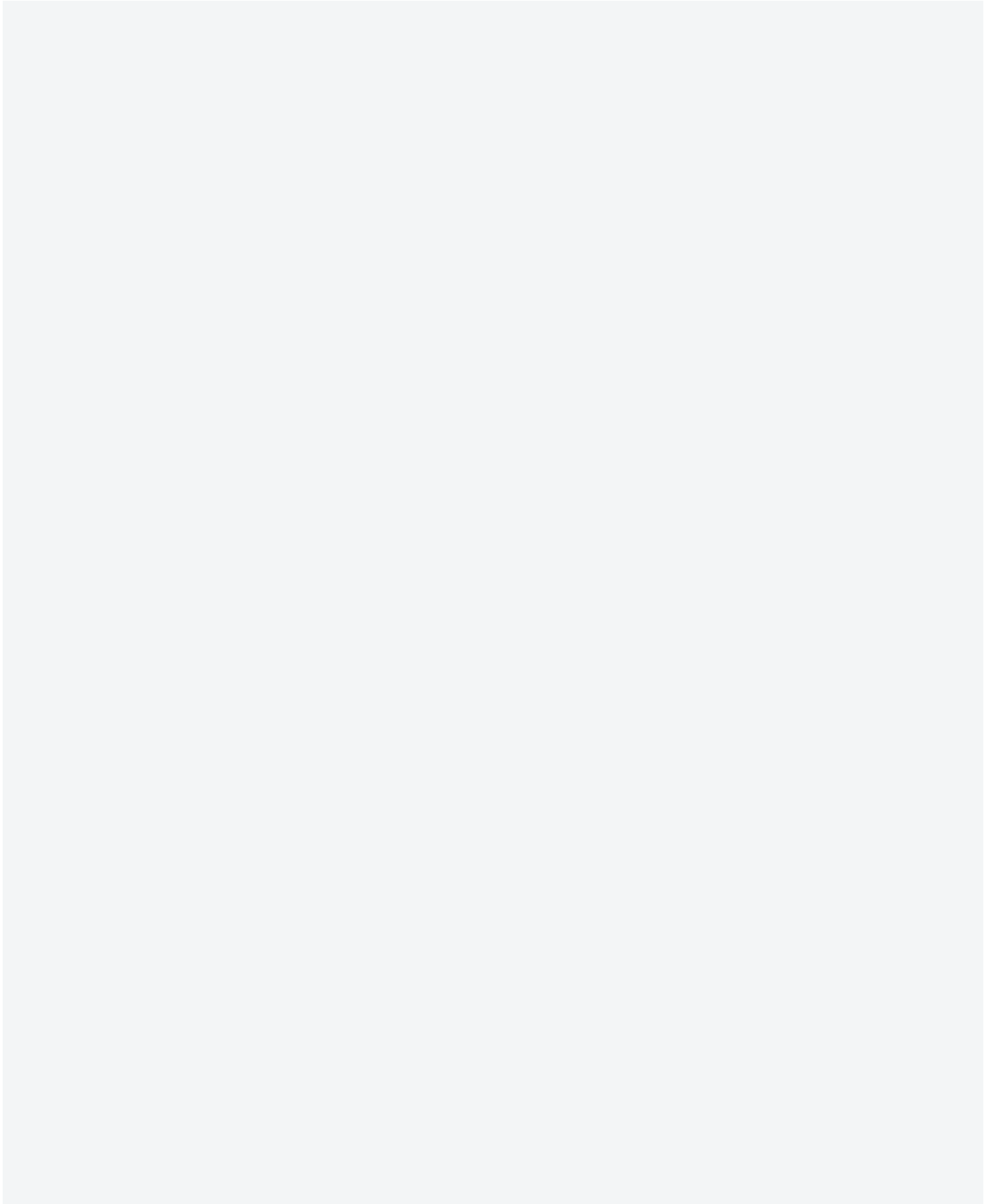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코칭케어퍼블리티와고급 과정도 준비 중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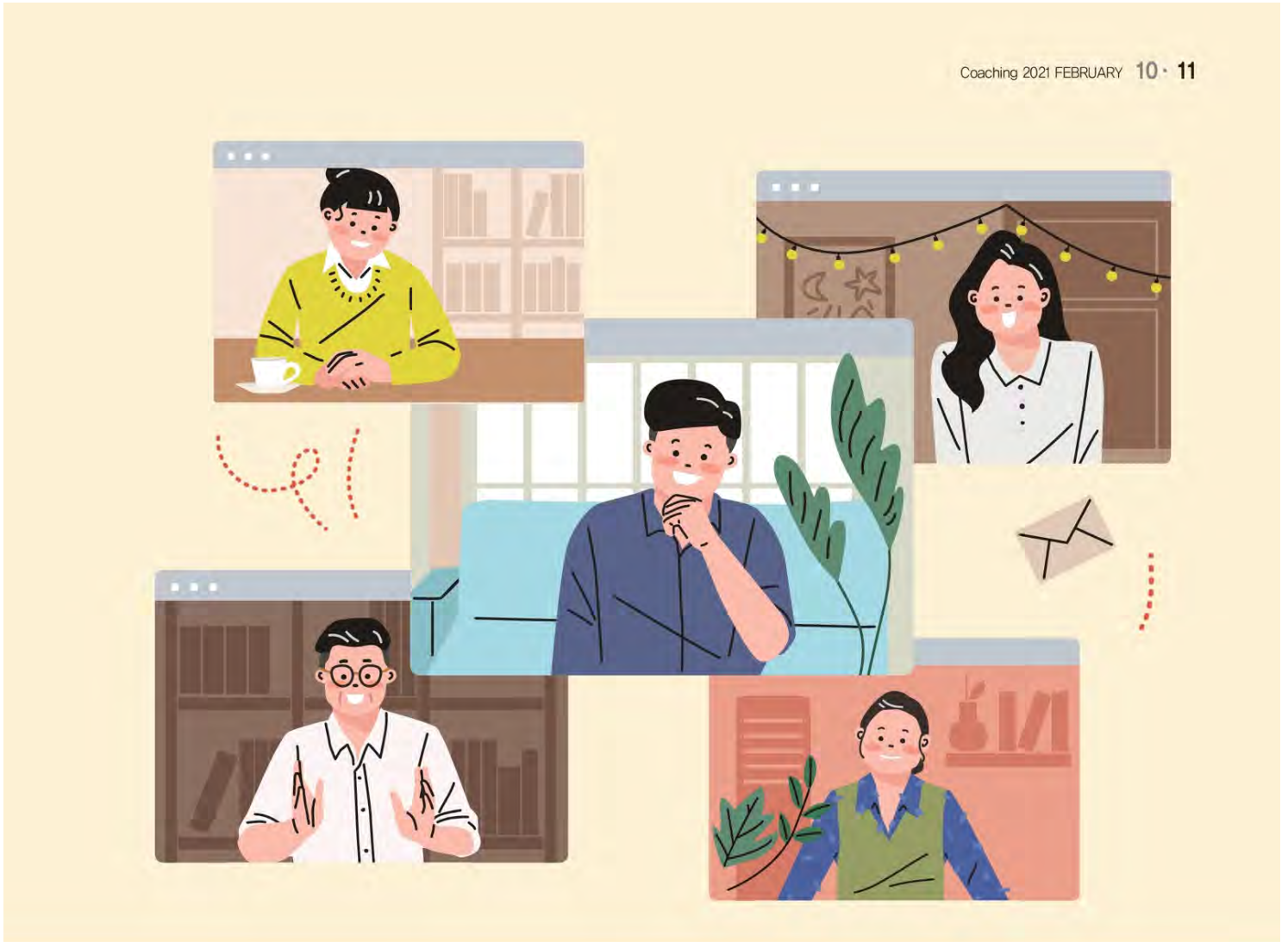
김상복 대표님에게 코칭이란?

내가 선택한 마지막 직업이고 코치라는 전문직으로 노년을 이어갈 생각이지요. 이전 새로운 직업을 갖진 않겠다는 거지요.(ㅎㅎ) 다만 이걸로 끝까지, 죽을 때 까지 계속 할 직업. 저는 코칭이 우리 시대의 대안이자 미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하는 코칭'.

코칭을 확산하기 위해 코치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누구든 전문 코치로서 해야 할 기본 활동 3가지가 있습니다. 코칭 문화를 보급하는 활동, 1:1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전문 코치들을 육성하는 활동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코칭 문화의 보급활동은 코칭 시장의 확대 활동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칭 문화 보급은 코칭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다양하게 시민 생활 속에 번져가는 활동이라면, 코칭 시장 확대 활동은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코칭을 끊임없이 개발해내과 다른 전문 분야와 경쟁하며 고객들을 만나가는 과정인거죠. 개인적으로 현재는 코치들이 판매 가능한 상품을 개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직과 시민의 갈등과 필요에 조응한 아젠다를 '코칭'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개발해 경쟁해야 하고, 선도해 가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한 상상력과 창의성의 기반이 1:1코칭 경험입니다.

(사)한국코치협회 코치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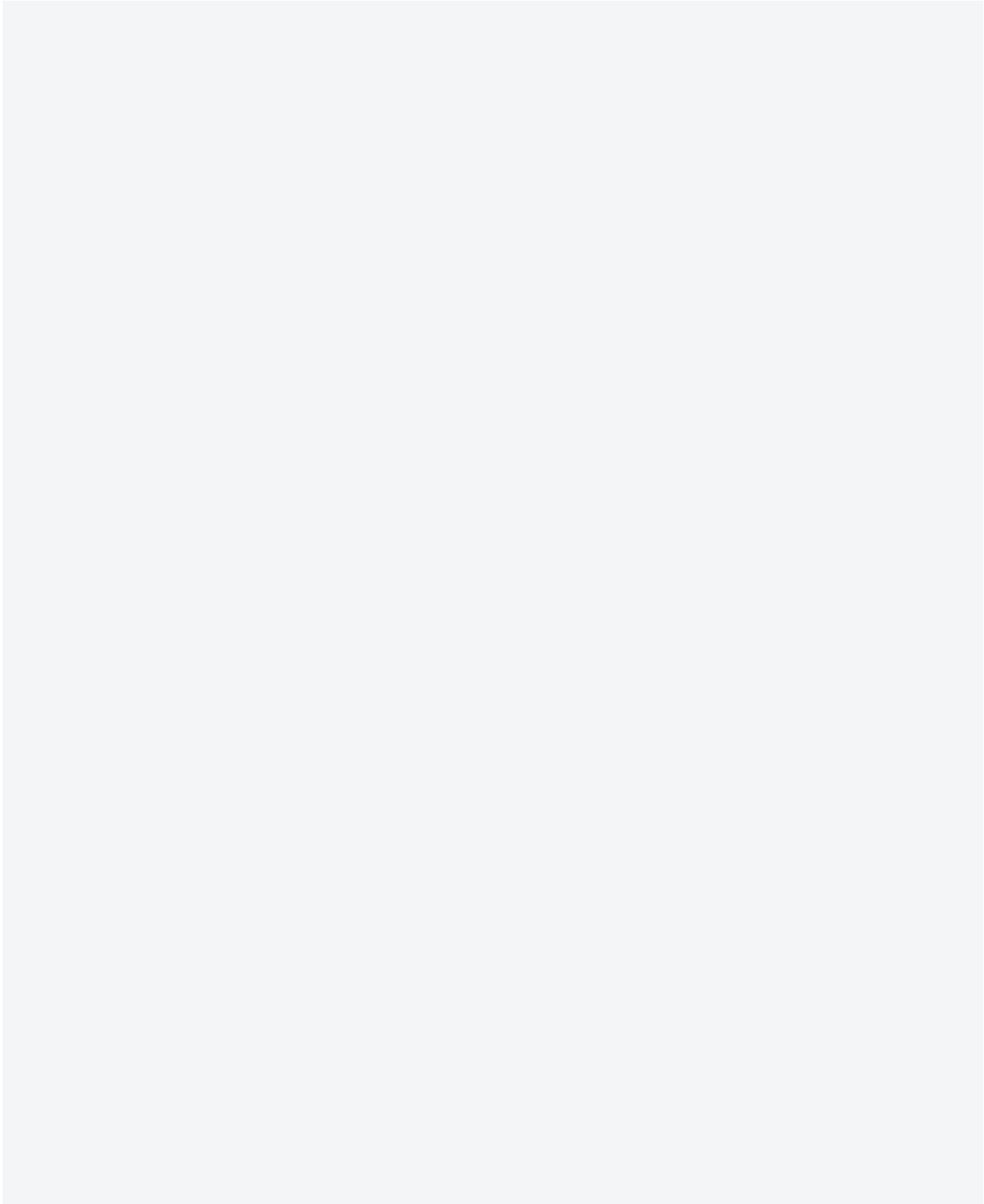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백화白化가 만발해야 봄이 오지요. 한 송이 꽃으로는 봄 소식을 알릴 뿐입니다. 다양한 꽃이 피게 장터를 펼쳐주는게

협회가 할 일이지요. 이 'Coaching' 지면에도 언제나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창간 후 한 번도 안 나온 코치 얼굴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코치들의 소식지가 아니라 코칭 소비자를 발굴하는 성격의 매체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소비자들이 보고 "아 이런 주제도 코칭을 받을 수 있구나, 코치를 고용하면 이런 점이 좋겠구나.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코칭 소비가 발굴되는 지면으로 가독하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이나 회사별로 마지막 표지에는 자기 사진이나 회사를 넣어서(가령 최소 100부 인쇄 신청) 만들어 줘 코치들이 자신의 거주지역이나 기관에 뇌둘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Coaching에, 코칭 문화와 시장의 확산에 많은 코치님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



zoom in issue

작금은 격변의 시대,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의 시대!

코치라는 직업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3C (Core, Contents, Capability)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코칭을 공부하고 코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코치를 업으로 목표하는 코치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

글 정연택 (홍보위원회 마케팅1국장 / KPC 인증코치)

코치라는 단어는 많은 분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코칭 철학을 삶 속에 녹여내어 코치다운 삶을 추구하는 분들, 코칭 공부를 통해 배움을 쌓아가시고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 코칭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들, 코치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실전 코칭을 행하고 있는 분들 등등 우리는 코칭과 관련된 많은 분을 '코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코치가 어찌다가, 가끔, 드문드문 코칭을 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꾸준히 코칭을 하고 소득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러한 코치들이 많아지고 세상의 성장과 선순환에 기여하는 것.

코칭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코치라는 직업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보거나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지칭한 다양한 의미가 있는 코치로서의 삶의 모습 중에서도, 직업인으로서의 코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코치들에게는 필요한 3가지의 C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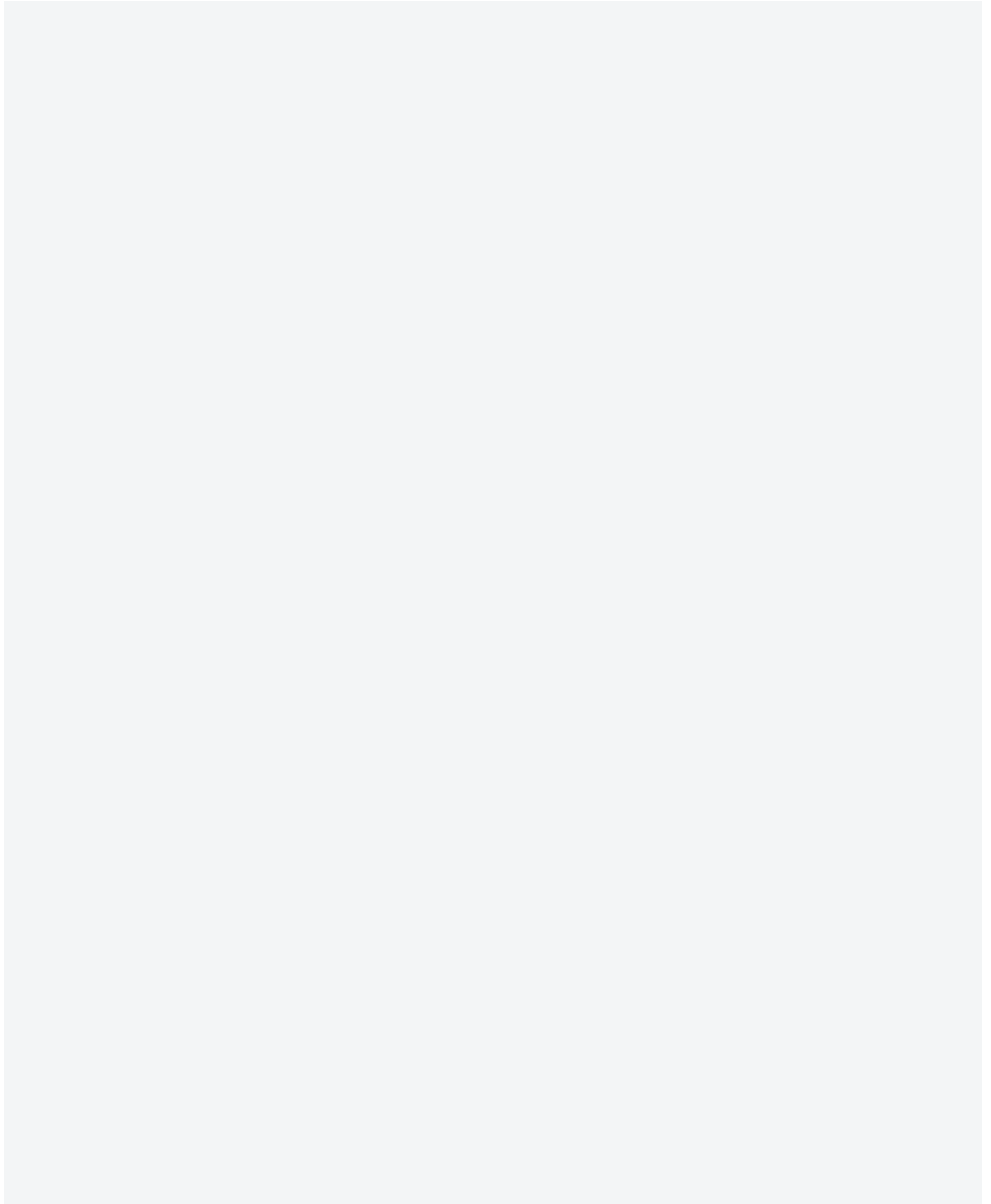
Core, Contents, Capability.

이 3가지의 C를 보며 여러분들이 떠올린 것은 어떤 것들일지 궁금해지네요.

첫 번째의 C : Core. 본질입니다.

겨울호 칼럼의 '피보팅' 이야기에서 코칭을 활용해 승승장구하고 있는 많은 코치님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잘 이루어낸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치님들뿐만 아니라 인스타, 페이스북, 드롭박스, 쿠팡 등 성공이라는 단어에 누구보다 적합한 기업들 역시 흐름에 맞춰 빠른 적응과 변화, 성장을 이루어낸 곳들입니다. 이 변화와 성장은 그저 좋아지기 위한 이기기 위한 무분별한 변화와 성장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니즈'라는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추구해야 하는 본질을 단단하게 갖추고, 그 본질을 축으로 이루어낸 변화 성장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코치'의 모습. 그 모습은 사용자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나요?

두 번째의 C : Contents, 콘텐츠입니다.

단단하게 나를 지탱해 줄 Core를 갖추었다면, 이 Core를 잘 드러내고 표현할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코치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까지 잘 알아차려야 한다면, 코치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는 초코파이같은 사이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말하지 않으면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말을 해도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즉, 콘텐츠라는 형태로 드러내는 것! 표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잘 다듬어내지 않았다면 고객에게는 어디선가 한 번 봤을 법한, 들어 봤을 법한 많고 많은 콘텐츠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 다듬어서 잘 표현해내는 것.

여러분은 가진 원석(Core)을 어떤 모습의 보석(Contents)으로 가공할 것인가요?

세 번째의 C : Capability, 역량입니다.

코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코치로서의 필요한 역량들에 대해 많은 학습과 수행을 합니다.

자격을 기준삼아 이야기하자면 KAC가 되기 위해선 20시간의 이론 교육과 50시간 이상의 코칭 시간, KPC가 되기 위해선 60시간 이상의 이론 교육과 200시간 이상의 코칭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지 않은 노력과 물리적인 수행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직업인으로서의 코치'가 되는 역량의 모든 것을 채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은 KAC, KPC라는 수준에 걸맞는 '코칭을 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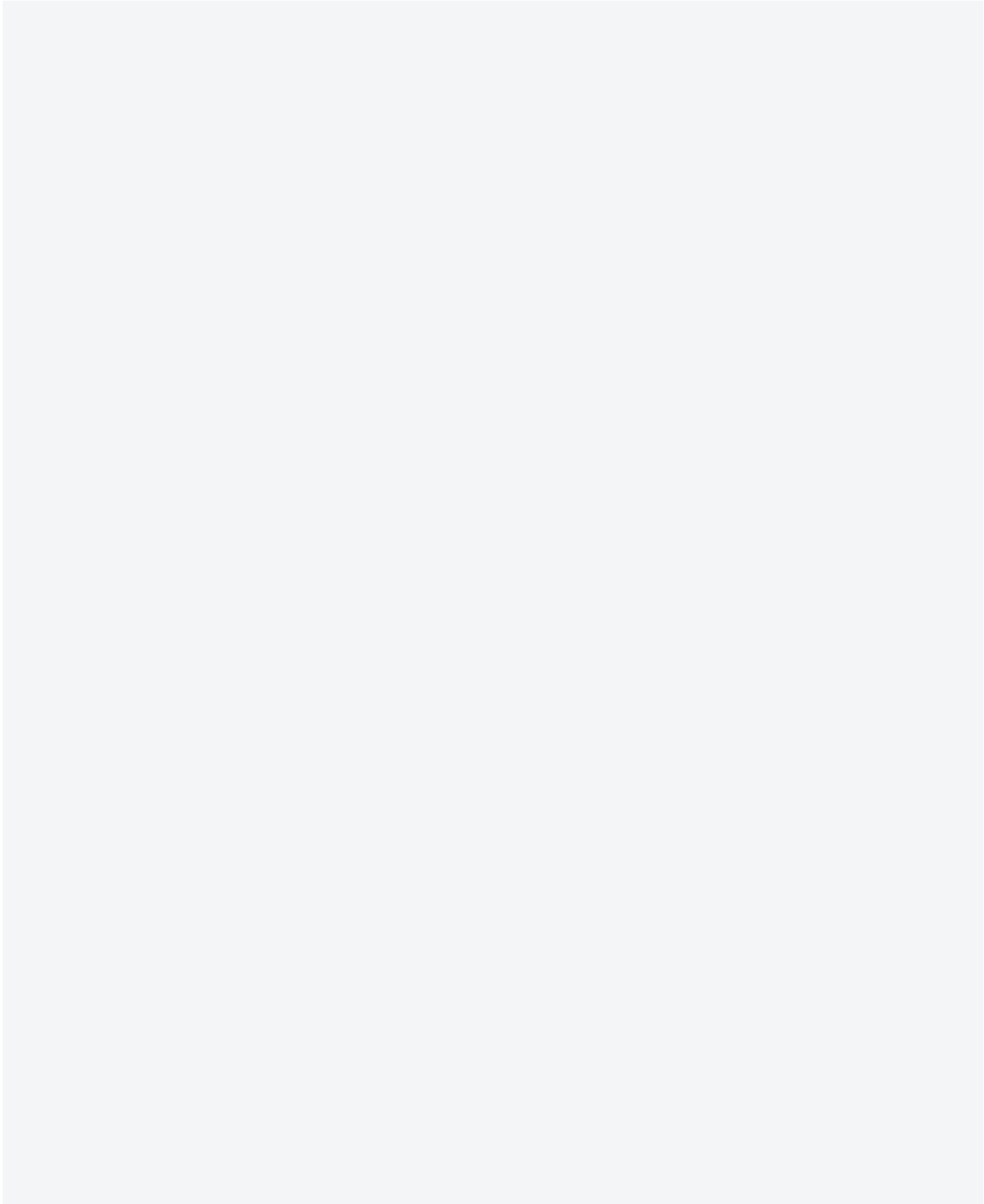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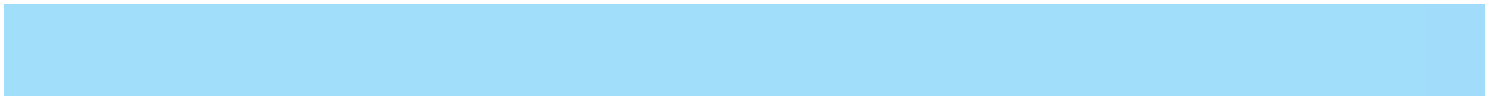
는 역량이라는 척도입니다. 직업인 코치로서 활동하기 위해선 코칭 역량은 기본이며 그 외에 아이디어 기획, 콘텐츠 개발, 상품화, 마케팅, 세금 등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창업, 1인 기업의 형태가 아닌 코칭 펌에서의 활동이라는 형태라 하더라도 자격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코칭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역량이 필요하듯, 코치라는 직업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도 코칭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나의 Core를 잘 표현하는 Contents, 이를 성공적으로 시장원리에 적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Capability.

당연하지만 그렇기에 놓치기 쉬운, 코치라는 직업인으로서 살기 위한 3C.

여러분은 지금 코치라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



zoom in issue

새로운 코칭 도구 아로마!

온전한 코칭으로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것에 더 아름다운 것을 더한다면 어떠한 매력이 있을까?
그 새로운 매력을 찾은 비기너코치님을 만나보자
글 박혜원 (국제 아로마테라피스트 / 한국코치협회 KAC 인증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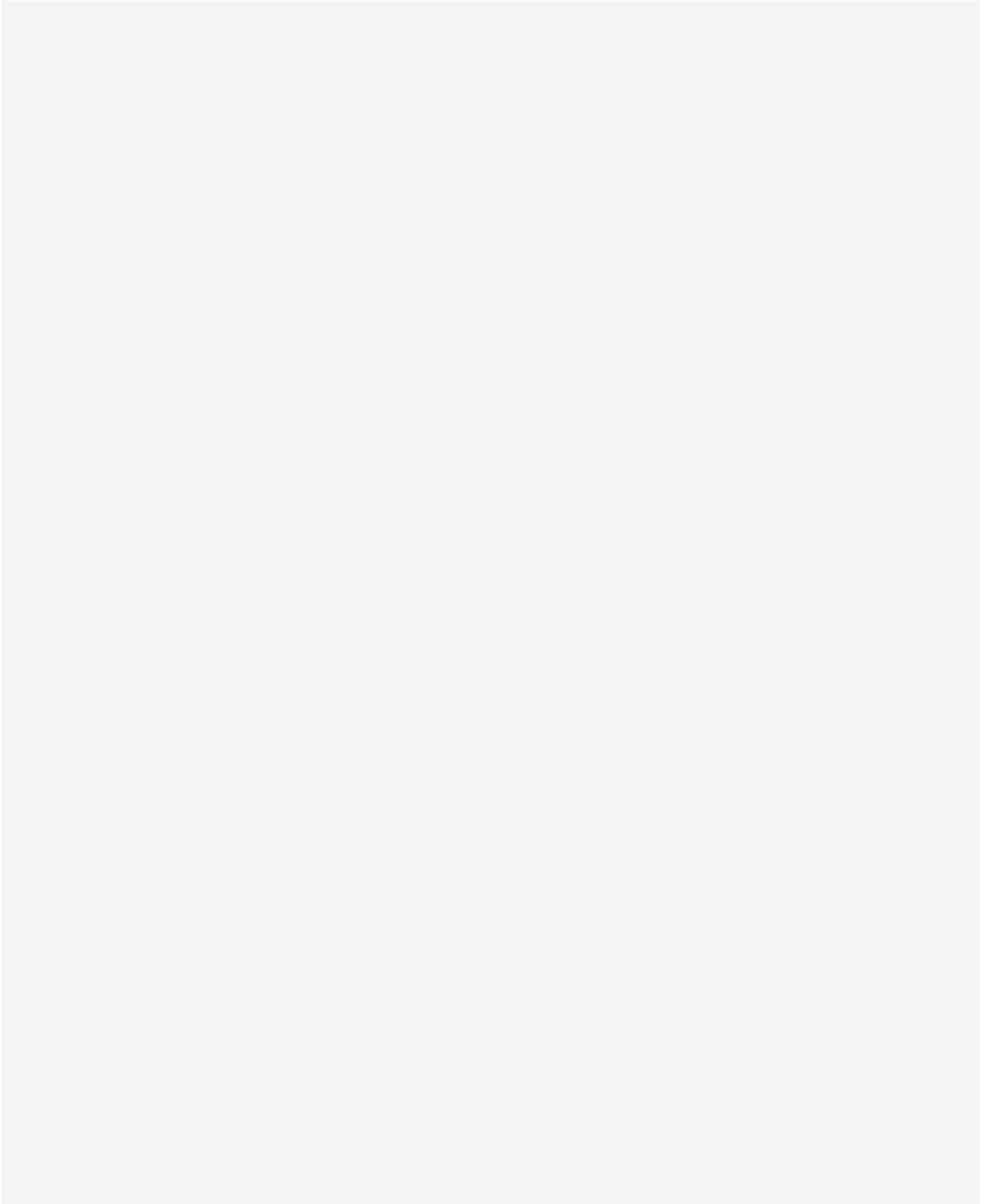
여러분들은 아로마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아로마(Aroma)를 들으셨을 때 어떤 단어가 먼저 생각
나시나요?
힐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코칭에 새로운 도구로 아로마를 사용한다니 과연, 아로
마가 코칭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궁금증이 생기시죠?
아로마를 시작한 계기는 제 아이가 심각한 아토피로 고
생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향기
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집중적으
로 공부하기 위해 국제 아로마테라피스트 자격증을 취
득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알기 시작한 코칭

코칭을 처음 배웠을 당시 질문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
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초보 코치
가 가장 어려운 좋은 질문과 공감능력이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코치가 되려면 어떻
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도중 '내가 잘 알고 있는 아로마
를 코칭에 접목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아로마테라피와 코칭

아로마는 향기를 말하고, 테라피는 치유를 말합니다. 우
리의 후각은 신체 어느 감각 기관 보다도 예민하여 세포
반응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향의 입자가 뇌로 전달되어
뇌하수체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뇌하수체는 자율신경
계, 내분비계, 면역계를 관장하며 특히 대뇌 면역계는
심장박동이나 혈압, 호흡, 기억력, 스트레스, 호르몬의
밸런스 등을 주관하므로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
니다. 즉, 아로마테라피는 후각신경을 자극 하고 뇌로
전달되어 인간의 본능과 감정을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
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코칭에 사용한다면 보다 좋은 코칭 결과를 얻을 수 있겠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코칭의 경우 도입부에 적용하는 것이 고객과의 다양한 질문과 대답을 통한 레포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20~30가지 에센셜 오일을 선별한 뒤 고객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향기를 맡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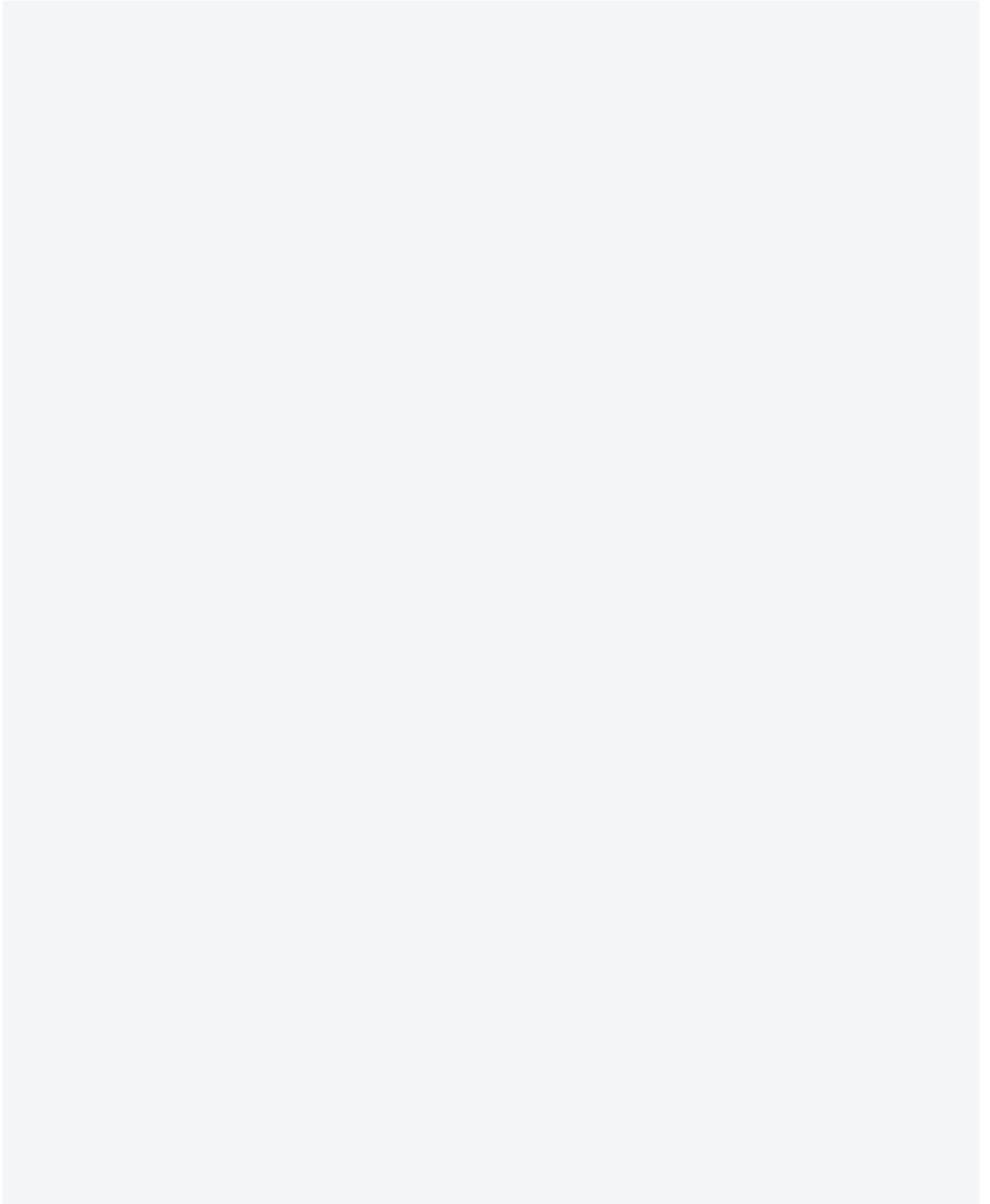
고객은 3~6가지 오일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고른 에센셜 오일의 향을 맡으며 현재 기분이 어떨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어보며 코칭을 시작합니다. 향을 맡은 고객의 몰랐던 기억을 꺼내어 볼 수 있고, 소극적인 고객에 대해서는 선택한 향으로 현재의 심리상태를 유추해 보거나 관련하여 다른 질문을 통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센셜 오일은 코칭 기간 동안이나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한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하여, 룰온을 만들고 이를 사용하여 고객은 블렌딩 한

오일을 평소에 사용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확산법, 스팀법, 목욕법, 수증기 흡입법 등을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베개에 한·두 방울 떨구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힐링(Healing)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현대인들은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코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로마 코칭은 향기로운 아로마로 긍정적인 심리를 만들고, 코치의 강력한 질문으로 고객의 지친 삶을 에너지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강력한 무기 또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zoom in issue

코칭에 기반한 멘토링



문화사업, 창업컨설팅 그리고 IT관련 사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기너 코치 김용원.
 일방향적인 창업멘토링에서 벗어나 코칭기법을 적용하여 멘티들의사업목적과 역량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비법을 만나보자.
 글 김용원 ((주)알비노 대표이사 / KAC 인증코치)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었고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다.
 회사 살림살이에 멘토링, 코칭, 심사평가 등 여러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냈다.
 개인적으로 멘토링과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진행하는 것이 창업자들 멘토링과, 학생들의 코칭을 하고 있다.

■ 한국코치협회 코칭의 정의

'코치와 코칭을 받는 사람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

■ 멘토링의 정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도,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것' 때때로 멘토링과 코칭이 어떻게 다른지 고민해본다.

창업자들의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방식은 코칭과도 비슷한데 특히 창업자들의 의지와 목표가 명확한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한다.

창업하기 전에 멘토링을 받기도 하지만 코칭을 받아 스스로의 목표의식과 역량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간의 관계, 목표, 성장 이라는 틀에서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코칭과 멘토링이 가지고 있는 공동 목표이기 때문이다. 형태가 어떻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업목적과 역량을 이끌어 내줘야한다.

멘토링 과정에서 멘티들에게 이야기 할 때 단순 경험의 전달과 솔루션 제공이 아닌 코칭기법을 활용하여 멘티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관찰을 통하여 스스로의 역량과 목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달한다면 멘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멘티들에게 스스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가 의지를 반영시킬 수도 있고 찾고자 하는 사업방향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의 전달을 떠나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어떻게 취득 할 것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창업자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코칭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반주입식과 같은 기존 성공했거나 사업을 진행중인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하다 보면, 창업자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 보다는 나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지금의 멘토들은 과거의 성공 과정을 전달하는 것보다 창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코칭을 통해 기업가 마인드,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영역, 아이디어 창출 등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것에서 효과성을 발견하고 있다.

초기 회사의 성장은 기술적인 성장도 있지만 대표 개개인의 성장이 기반되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사업을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을 스스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코칭은 창업자들도 배워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



